

· 목 차 ·

- 2 포커스 1
아주대병원이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 3 포커스 2
「서울시 안전도시」, 아주대병원이
만듭니다
- 4 선인재 클럽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
- 5 의학리포트 1
아주대병원 암 환자 60대,
위암 환자 가장 많아
- 6 돌아보는 의료원 10년(2)
산생 아주의과대학 첫 걸음의 발자취
- 8 사랑의 울타리
우리의 참여와 실천으로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집니다
- 9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내가 갈 길은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 10 유명인과 질병
홍콩의 별을 떨어뜨린, 자궁경부암
- 11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결코 혼자 가야하는 길은 아닙니다
- 12 의학리포트 2
단백질 Smad3, 위암 억제 효과 밝혀져
- 13 AMC NEWS
- 18 건강하게 삽시다
-황사 발생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여주세요
-천식환자 황사 발생시 상비약 준비해야
-봄철 황사, 안과질환 더욱 부추겨
-피부미인, 황사 대비 피부관리 필수!
-황사 비상, 코(鼻)질환 비상!
- 23 Zoom & Zoom
안성민 졸업생, 「21세기를 이룰
우수 인재상」수상
- 24 병동클리닉 3층 집중치료실 A
- 26 나의 건강은?
당뇨병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27 협력병원 탐방 이천 바른병원
- 28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아주대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역사회 봉사과 발전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학대아동 보호팀」 발대식이 3월24일 있었고, 수원시에 이어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학술연구 사업 계약을 3월5일 서울시와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수가 50만명, 이중 경기지역의 아동 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성공적인 치료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료적 책임에 동참코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서울시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아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함께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주대병원이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학대아동 보호팀이 출범하면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아동학대에 방센터에 신고하고, 임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한 치료 및 치료후 퇴원계획 등을 일괄적으로 수립해 주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의 사건처리 관련기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특히, 신고된 대부분의 학대아동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독하고, 여러 임상과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학대아동 보호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24일 오후 5시30분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김용서 수원시장, 대한의사협회 김세권 부회장,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김정미 소장, 김효철 의료원장, 김영수 의과대학장, 홍창호 병원장 등 원내외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아동 보호팀」 발대식을 가졌다.

학대아동 보호팀은 경기남부지역의 학대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보호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이번 아주대학교병원 학대아동 보호팀의 출범은 전국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수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의료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학대아동 보호팀은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 배기수 교수를 팀장으로, 응급의학과 조준필, 정운석, 외과 홍정, 신경외과 윤수환, 소아과 박문성, 성형외과 정재호, 정형외과 조재호, 산부인과 김미란, 정신과 신윤미, 외과 홍정 교수 등 소아질환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각 분야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원무팀 등 의료지원진으로 구성됐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 7월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학대아동의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02년 3월부터는 「의료비지원 협약」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들을 선별하여 의료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다.

학대아동 보호팀 팀장 배기수 교수는 『2003년 상반기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68건으로 점차 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주변에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낯을 보내는 아동들이 의외로 많음을 경계하고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하기 위하여 「학대아동 보호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아이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여 괴로운 세상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391 또는 112번입니다

「서울시 안전도시」 아주대의료원이 만듭니다



▲ 사진은 지난 2002년 2월26일 수원시를 대상으로 개최된 WHO 안전도시 공인식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조준필 교수팀이 3월5일 서울시 시청에서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학술연구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시가 WHO로부터 「안전도시」 지정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학적 손실을 감소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서울시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사망자 수 38,492명 중 약 10%인 3,901명이 사고로 인한 손상이었으며, 이중 1,376명(35.3%)이 자살, 914명(23.4%)이 운수사고였다.

조준필 교수팀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손상관련 지역사회진단, 안전증진 프로그램 자료수집 및 개발, 국외 전문가 자문, 손상 특성별 안전증진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서울시 안전증진을 위한 장기적 추진전략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학교실 조준필 교수팀은 이미 지난 1998년부터 수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 2월26일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WHO 안전도시 협력센터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는 성과를 이룬 바 있어,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학교실은 현재 서울시, 수원시에 이어 제주시를 비롯한 국내 몇 개 시, 도로부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받고 있어 국내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국내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분야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준필 교수는 『서울시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수행으로 인해 선진 안전문화 정착, 안전증진이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도시, 환경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및 아시아의 안전도시 모형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도시(Safe Community)란 그 지역공동체가 이미 사고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

안경 줄을 배꼽까지 내려뜨린 할아버지가 옆자리의 진주 목걸이를 한 할머니에게 나이를 묻는다. 예순둘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감탄한다. 『좋은 나이요, 나는 예순일곱인데 내가 당신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요.』

- 은희경의 <서른살의 강> 「미와 유미」 중에서 -

의료원 1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2차 선정된 내용들을 보면서 잠시 이곳에 처음 와서 꿈에 부풀었던 옛날을 회상했다.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색도 멋있게, 아름답게, 상도 탈수 있게 ... 두근대는 마음으로 설레었다. 「이 곳이 마지막 직장이 되리라. 먼 훗날 뒤 돌아보면 마음이 벅찬 과거를 가지리라. 그리고 그 벅참에 잠시 숨이 거칠어 질 수도 있으면 좋으리라.」

나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키운지 이제 10년이 지났다. 10살의 나이가 되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모든 재료를 준비한 아이의 느낌이 아닐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 잘못된 부분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나이.

그러나 간혹 우리는 열의에 찬 희망보다는 일상의 안주를 원하고, 이미 틀렸다고 포기하고, 이제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10살의 나이는 너무 어리고 아깝다.

「함께한 고마운 10년! 함께할 행복한 100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된 어린 아이처럼 10년간 준비되어진 우리의 힘을 모아 그 뜻을 향해 우리가 할 일을 계획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함께 행복한 100년이 먼 훗날 뒤돌아 보았을 때 만족하고 가슴 벅찬 날들이기를 바란다.

가끔 지금보다 10년 전 그 때로 돌아간다면 현재의 못한 어떤 것도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는데 망설여진다면 10년 후 내가 가질 생각들을 먼저 헤아려 보길 바란다. 행복한 10년후, 100년 후가 되기를 바라면서 뭐든지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르다



김 효 심 간호부장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아주대병원 암 환자 60대, 위암 환자 가장 많아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암 환자의 현황과 유형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 해 동안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총 환자(29,027명) 중 암 환자의 비율은 10.7%(3,105명)로, 성별은 남성 54.5%, 여성 45.5%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 암 환자 중 주요 10대 암에 걸린 환자의 비율은 77.2%로, 위암(18.7%), 간암(11.7%), 폐암(11.0%), 결장 및 직장암(9.5%), 유방암(7.5%), 갑상선암(6.1%), 자궁경부암(4.7%), 백혈병(3.7%), 전립선암(2.2%), 췌장암(2.2%) 등의 순으로 높은 발병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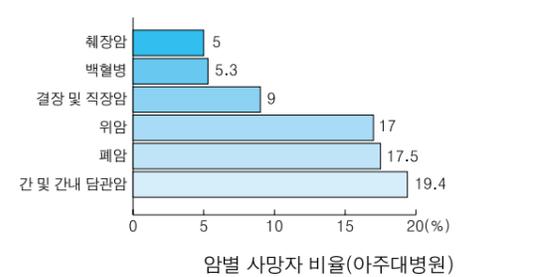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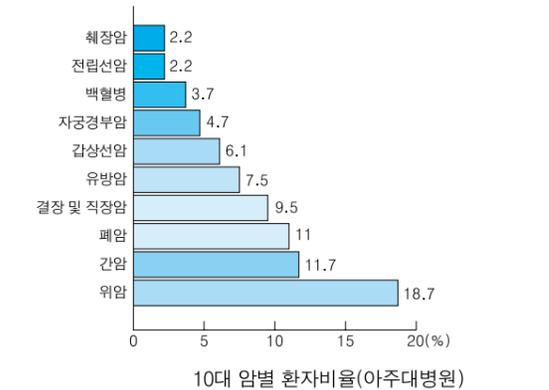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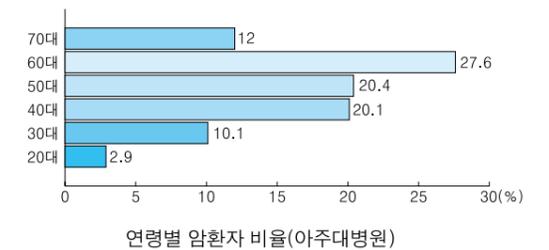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위암, 간암, 폐암, 결장 및 직장암, 전립선암 환자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결장 및 직장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암 환자의 분포는 60대가 27.6%(1,877건)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0.4%(1,392건), 40대가 20.1%(1,371건), 70대가 12.0%(817건), 30대가 10.1%(690건), 20대가 2.9%(198건) 순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많이 발생한 암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 10대까지는 백혈병과 뇌암 ▲ 20대는 갑상선암과 백혈병 ▲ 30대는 갑상선암과 위암 ▲ 40대는 유방암과 위암 ▲ 50대는 위암과 간암 ▲ 60대 이후에는 위암과 폐암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아주대학교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수원 거주자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택(10.4%), 용인(9.9%), 화성(7.6%), 안산(4.9%)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주대병원에서 사망한 전체 환자 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4.2%를 기록, 사망자 2명 중 1명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암 사망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62.6%, 여성 37.4%로, 간 및 간내 담관암으로 인한 사망이 73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17.5%), 위



암(17.0%), 결장 및 직장암(9.0%), 백혈병(5.3%), 췌장암(5.0%)을 원인으로 한 사망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에서는 『암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암의 발생상태를 비롯하여 환자들의 치료 및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암 발생 예방 및 치료방법의 개선을 강구하고, 암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제의 확립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생 아주의과대학 첫 걸음마의 발자취

1990년 필자가 아주대 의대 초대 학장에 취임하여 출근해 보니 이영돈(해부학), 문창현(생리학), 임인경(생화학) 교수분들이 이미 한 학기를 전후로 해서 임명되어 와 있었고, 김형일(미생물학) 교수는 취임 인사차 김효규 총장실을 찾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필자와 함께 아주대 의대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를 비롯해 위의 네 분이 신생 의대 초기 교수진을 형성하였다. 1988년 당시 첫 의대 신입생을 받아들인 아주대 의대는 본교 조도현(생물공학) 교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예과학 부장직을 맡아 애를 써주고 있었으며, 강의는 현재 아주대 본관 건물의 세 개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렇듯 신생 대학인 데다 교육환경 또한 열악한 편이라 걱정이 많았으나 낙담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우리 첫 교수진은 신생 의대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한마음이 되었다. 기존 의예과·분과 개념의 체계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의예과가 이미 가동되고 있었다. 기존의 국내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교육이 해당 대학의 자연과학대학에 연속·주관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우리 신생 의대에서 되풀이 되는 것을 막고, 6년 통합 의과대학 시스템 아래 의예과 교육을 의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필자가 취임하기 전 2년간 의예과 운영을 맡아온 자연대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득권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의예과 교육의 운영 주체를 의대가 가진다는 것은 의대 학생들이 수강하여야 할 과목을 의대측이 주도하고 자연대에서는 해당 과목을 의대로부터,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하청」 받는 형식을 취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의대 교육에 비중이 적다고 판단한 「동물비교 해부학」 같은 것은 커리큘럼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 외에도 의예과에 다니는 의대생을 의대가 주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의대생으로서의 귀속감을 갖도록 하자, 학생들 또한 점차 활기를 찾았다. 학생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당시 큰 보람이기도 하였다.

우리 교수진은 신생 의과대학으로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의대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위해 일하자는 데 뜻을 모아 정진하였다. 그런 계획에 따라 국

내 최초로 병원봉사 실습제도 도입, 인성교육 강화, 기초의학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 등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자 「다른 의과대학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는 등 학생들의 불멘소리가 들려왔다. 신생 대학인 우리가 기존 명문대학이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아무리 잘해도 이등박에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일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설득하면서 추진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1987년 교육부로부터 설립자, 김우중 회장과 김효규 총장님의 집념의 산물인 의과대학 설립 허가가 떨어지자 아주대학교는 오랜 숙원사업을 실현하는 경사스러운 쾌거를 이룩했다며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깐, 의과대학을 작게는 그저 일개 학과, 크게는 자연과학대학 정도 규모로 생각했는데, 그 규모가 조금씩 구체화되자 의과대학에 대한 거부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시련은 신축 예정인 의과대학 건물의 규모와 시설내용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었다. 당시 의대 건물을 설계·신축하는 데는 본교의 교수, 특히 공대 교수분들의 실질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하였다. 의과대학에는 각종 기초의학 교실은 물론 임상의학 교실들이 30여개 넘게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건물의 크기를 정해야 하고 각 교수실마다 세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이해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인내심을 요하는 어려움이었어도 프로젝트에 동참한 교수들의 협조로 늘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럼에도 본교 소속 교수들은 2천여억 원이라는 돈이 의대 및 대학병원 건축에 소요된다는 점에 직·간접적으로 거부감을 표하곤 하였다. 말하자면, 본교에 들어올 그 큰 돈이 의대측에 투입, 또는 유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의대 설립에 따른 무형의 거부와 저항은 종종 우리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 그러던 중 1991년초 아주대학교 전체 교수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고, 필자는 세미나가 오해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필자는 「아주대학교 발전에 대한 의대의 역할」이라는 제하로 발표를 하게 해달라고 당시 교무처장인 김철 교수에



게 부탁을 하였고, 이를 김 교수가 흔쾌히 받아주었다. 세미나에서 필자는 많은 본교 교수들에게 대충 다음과 같은 요지로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의대가 없는 연세대학교, 의대가 없는 한양대학교나 경희대학교를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들 대학이 지금과 같은 인지도를 가질 수 있겠는가. 각 대학들이 의과대학 설립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또는 문과대학에서 사회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많은 투자와 함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의대가 들어서고 대학병원이 운영되면 대학병원을 출입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숫자가 일년이면 150만~200만 명은 족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대학교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대는 공대나 다른 대학과 달리 대학병원의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내게 되고 나아가 자금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의대가 설립되지 않아도 의대 및 대학병원에 투입되는 거액의 돈이 본교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설립은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틀림없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세미나 이후 본교 교수분들의 의과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 소모적인 오해 또한 사라졌다.

돌이켜 보면 신생 의대가 아주대학교의 새 식구가 된 지도 어느덧 16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의학계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학교도 국내 대학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아주대학교가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려웠던 그 시절의 기억보다는 흐뭇함이 앞선다.



이성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우리의 참여와 실천으로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집니다

전 세계인들의 눈을 하나로 모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세계 축구의 대잔치를 즐겼던 서울 삼삼동 월드컵 경기장. 지금은 월드컵 경기장이 우뚝 솟아 있는 삼삼동 일대는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였다. 대학교 1학년, 도시 빈민들의 생활 터전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하고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난지도였다.

당시 난지도에서는 도시 빈민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품을 분리하기도 하고, 고물을 모아 되팔기도 하며 생활을 하는 곳이었다. 당시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던 때라, 난지도 인근에서는 초여름부터 악취가 진동하고, 비라도 오면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 내린 폐수가 시커멓게 길을 뒤덮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들은 낮에 모두 「쓰레기 산」에서 폐품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집에 덩그러니 남은 아이들은 동네 또래들과 함께 인근의 교회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나와 같은 자원봉사자들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였다.

우리들은 난지도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던 놀이방과 공부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 아이들 점심 챙기는 것과, 초등학교 학생들 과제물 지도, 공부방에서 초등학생들 공부 지도 등의 활동을 주로 하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 때 자원봉사를 함께 했던 친구들은 꽤나 열심히들 했다. 단지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봉사활동이 대상자들에게는 귀한 도움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굳게 믿었다. 난지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은 비록 유치원이나 학원에는 가지 못하지만, 학교공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그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그런 속에서도 초롱하게 빛났던 아이들의 눈빛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발전했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은 누구라도 뜻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고, 또한 사회구성원이라면 당연히 사회참여적인 면에서 실천해야 하는 활동이다. 이것을 돌아보는 작은 마음씨와 실천의 손길에 바로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각 층에서 시작된 자원봉사의 물결이 「시장경제」의 주체인 여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폭넓게 전개되어 왔고,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도 마땅히 주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서도 농촌지역 의료봉사, 지역주민 건강강좌, 광고산 자연보호 활동, 수해지역 긴급 복구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고, 또한 여러 교직원들도 음으로 양으로 여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어느 교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부서원들이 자발적으로 영아 보육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의과대학생과 의대 교수님들과 몇몇 뜻있는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교직원들이 참여했던 여러 봉사활동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교직원들은 진정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마음이 갖춰져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2004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준비되고 잘 계획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우리 이웃들의 복지수준은 증진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보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가져 올 것이며, 생의 소중한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다. 15년전 나의 작은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로 빈민촌이었던 난지도가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었다고, 그 당시 내가 돌보던 어린이들은 당당히 제 몫을 다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참여와 실천으로 세상은 조금씩 그러나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이상진 팀장 / 사회사업팀



내가 갈 길은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돌이켜 보건대, 보수적인 나의 성격에 비하여 심하지는 않다 해도 학문적인 편력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강외과(지금은 과의 공식 명칭이 구강악안면외과이지만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과명칭을 구강외과로 하고 있었다)에 지원할 당시만 해도 나의 관심은 구강암에 있었다. 대학원 학위과정을 거치면서도 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구강암은 지속적인 연구대상이었다. 하지만 그간 투자한 열정에 비하여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초라해 보였다. 여기서 나는 구강암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에 회의를 느끼고 환자에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트를 심는 술식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곳에서 의학자로서 뼈에 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차 학문적으로 뼈와 임플란트 연구에 매료되게 되었다. 한편, 임상가로서 UIC의 의사들과 함께 임플란트 수술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점차 임플란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문의를 받으면서 국내에도 이미 치과 임플란트의 저변이 확대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치료, 그리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성취도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야, 치과 임플란트가 바로 내가 찾던 분야였다.

주걱턱으로 알려진 악안면기형의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던 무렵, 1995년 처음 아주대학교병원에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당시의 치과는 교실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다가 이후 당시 주임교수였던 황병남 교수님의 노력으로 치과학교실을 개설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의 세부전공은 악안면기형이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구강암을 전공하고 학문적으로도 종양학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악안면기형 분야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주걱턱 혹은 안면비대칭 환자들이 악교정수술을 받고 달라진 외모만큼이나 쾌활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의학자로서의 성취감과는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

의학자로서의 성취감 뿐 아니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임상 의사로서의 나의 존재 가치를 모두 만족할 분야가 없을까 하는 최근의 성찰은 나의 관심을 치과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분야로 돌리게끔 하였다.

해의 연수기간은 내게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카고의 일리노이주립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구강악안면외과에는 치아와 함께 소실된 뼈를 재생시켜 여기에 임플란

임상의사로서, 그리고 의학자로서 모두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확신하고 귀국길에 오른 나는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에서 구강의학자로서, 또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로서 주어진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구강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확신과 함께 여기에 매진하고자 한다.

이정근 교수 / 치과학교실



홍콩의 별을 떨어뜨린, 자궁경부암



작년 2003년 12월30일 새벽, 홍콩의 마돈나로 불렸으며,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인기 가수 겸 영화배우 매염방(40세)이 자궁경부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했다.

매염방은 1982년 가수경연대회인 제1회 신수가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스타덤에 올랐다. 84년 영화계에 데뷔하여 영화 「우연」으로 대만의 금마장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귀향」이란 노래로 인기차트 정상에까지 오르면서 가수 겸 배우로서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7년 장국영과 공연한 「연지구」에서 여화역으로 금마장과 홍콩 금상장 여우조연상을 함께 받는 등 정상의 스타로 80, 90년대를 누볐다.

이러한 매염방이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렸음을 고백하고 투병생활 4개월만에 사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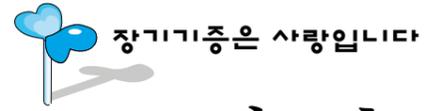
매염방이 걸렸던 자궁경부암은 암 중에서도 조기진단이 쉽고, 치료 예후가 좋은편으로 비교적 두려움이 덜 했으나, 매염방이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면서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게 된 것 같다.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즉, 자궁입구의 상피세포로부터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40~50대 여성이 주로 걸리며, 20~40세때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및 0기 암을 거쳐 침윤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한다고 추정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의 첫 증상은 질 출혈이고, 월경간 출혈, 성교후 출혈, 배변시 출혈로 이어지며, 더욱 진행되면 출혈과 분비량이 많아지며, 2차 감염으로 악취를 발산한다.

원인은 조기 결혼, 어린 나이에 첫 성교, 문란한 성생활, 출산을 많이 한 여성, 흡연, 성병 감염 등으로, 성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생활을 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해야 하며,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금연이 필수적이다. 또, 자궁경부암은 조기 발견될 경우 100% 완치가 가능하나, 초기 단계에는 증상과 소견이 거의 없으므로 성생활을 하는 모든 여성은 자궁암검사(질세포진검사)를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궁암검사는 비용이 저렴하고, 검사시간도 1분 이내이다.

장기 흥 교수 / 산부인과학교실



결코 혼자 가야하는 길은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진단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장기이식이 필요한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부담감, 장기의 공여와 수혜문제, 막대한 진료비, 가족내 역할변화 등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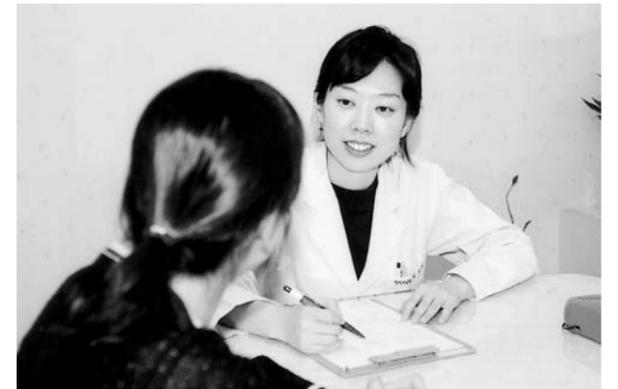
근래에 와서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장기의 수급문제와 법적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환자나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듯한 느낌도 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자조모임도 많이 결성되고 있고, 치료와 관련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여 적은 수이지만 몇몇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이식 환자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기준 및 조건은 지원기관·단체의 설립이념 및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비 지원은 단순히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결정을 하게 된다. 즉,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 환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 환자와 가족의 치료동기, 수술 가능성 여부, 가족의 자원동원 능력, 환자와 가족의 사회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식은 장기기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식수술의 실현여부에 따라라도 지원결정 시기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는 한국심장재단과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다. 한국심장재단은 신장이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한국복지재단은 간이식 환자와 신장이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식환자 사례별로 각종 방송모금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기이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 사회사업팀 박미정 사회사업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

장기이식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환자와 가족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장기이식을 준비하고 있는 병원 사회복지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이식과 관련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 언제나 바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청할 수 있다.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치료과정은 힘든 길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은 아니다.

박 미 정 사회사업사 / 사회사업팀



단백질 Smad3, 위암 억제 효과 밝혀져

암의 원인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뿐만 아니라 세포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물질이 소실되는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에서 단백질 Smad3란 물질이 없다면 위암이 생기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학교병원 외과 한상욱 교수에 따르면, 정상인, 위암 환자 각각 8명의 위점막을 대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 위점막에서는 모두 Smad3가 관찰됐으나, 위암 환자의 경우 3명(37.5%)에서 Smad3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Smad3의 존재 여부가 위암의 발생과 관련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 교수는 Smad3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누드 마우스의 피하에 Smad3이 없는 암세포와 Smad3를 회복시킨 암세포를 접종하여 10주간 관찰한 결과, Smad3이 없는 세포에서 자란 종양의 부피는 평균 6cm이며, 혈관생성이 많고, E-cadherin(세포와 세포를 결합하는 물질로, 이 물질이 없으면 암세포가 서로 잘 떨어져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이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Smad3을 회복시킨 세포에서 자란 종양의 부피는 평균 0.74cm 정도였고, 혈관형성이 거의 없었으며, E-cadherin이 잘 관찰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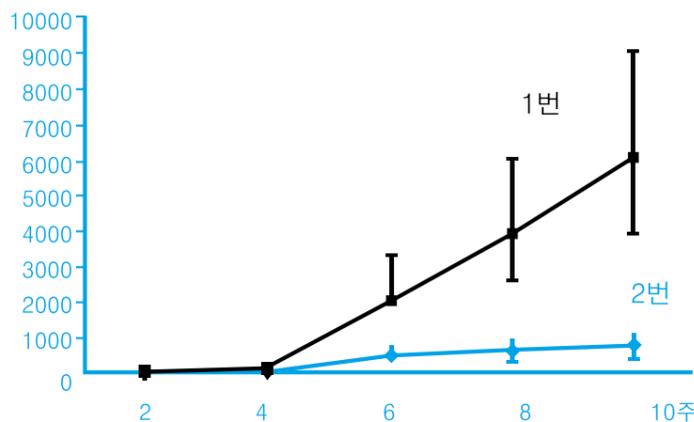
따라서 Smad3란 물질이 위암 초기에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없다면 암이 왕성하게 자라고, 쉽게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상욱 교수는 『위암초기의 단계에 Smad3가 없어지는 것을 막는 치료방법이 개발된다면 위암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ad3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성장인자, TGF-β의 신호전달체계의 중요한 매개물질이다. 매개물질로 Smad2,3,4가 있으며, 이중 Smad2,4의 돌연변이가 위암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TGF-β는 암 초기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TGF-β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2004년 국제학술지 『Oncogene』에 소개됐다.



▲ 1번선은 Smad3가 결핍된 위암세포이며, 2번선은 Smad3를 회복시킨 암세포이다. 10주간 관찰하였을 때, Smad3가 존재하는 경우 Smad3가 결핍된 경우에 비해 암의 성장이 억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원 ▶▶▶

의료원, 「제1회 Ajou Bio-Future Forum」 개최

—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역량 제고 —



의료원은 지난 3월12, 13일 양일간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과 로비에서 「제1회 Ajou Bio-Future Forum」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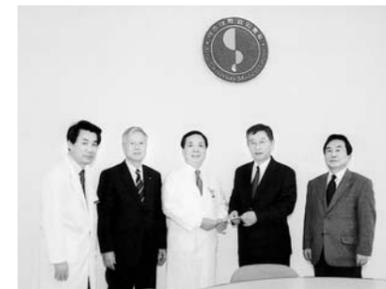
의료원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의과연구소에서 주관한 「제1회 Ajou Bio-Future Forum」은 급변하는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과 의료원의 교수 및 연구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참여 교수들의 Platform 및 Poster 발표의 외부특강으로 진행됐다.

외부특강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조영희 박사가 「과학기술부 바이오 분야 추진현황 및 전략」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단 강태건 박사가 「대형 공공연구과제 수혜전략」에 대해, 경기도청 김경석 직원이 「2004년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추진계획」에 대해 강의했다.

의료원은 이번 포럼의 후속사업으로 참신한 연구 주제와 선도그룹을 공모하여 연구사업비를 지원하는 「Bio-Future Grant Aware」를 계획, 지속적으로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정호 명예교수 · 원천약국,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각각 일천만원씩 기부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서정호 명예교수와 원천약국(사장 강해석)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축기금으로 각각 일천만원씩 기탁했다.

지난 3월16일 전달식을 가진 서정호 명예교수는 정년퇴임을 맞아 『의료원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3월8일 기금을 전한 강해석 사장은 『5년 전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던 중 신장암을 조기 발견, 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건축기금 모금사업에 동참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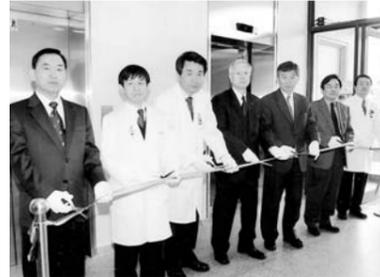
제3회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지난 3월27일 토요일 오전 7시30분 별관 대강당에서 제3회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월례회 1부에서는 2004년 2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대미기업 유무태 직원의 시상식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JS Speech Academy 원장인 이정신 아나운서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전달기법」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김영배 QI 팀장이 경기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주대학교병원 인지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동아리, 보육시설 자원봉사활동

의료원 영화 동아리에서는 의료원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 수원시 하광교동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시설인 경동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4월10일부터 매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동원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 돌보기, 이불 빨래하기, 함께 야외 활동하기 등 그룹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영화동아리 김활웅 회장(진단검사의학과)은 「작은 도움이지만,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경동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의료원 내 기독교인인 기독교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4월18일부터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재관 승강기 2호기 개통



의료원은 지난 3월15일 의과대학 1층에서 송재관 승강기 2호기의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개통식에서는 김효철 의료원장, 김영수 의과대학장, 홍창호 병원장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커팅 및 시승식을 가졌다. 송재관 교직원 및 방문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가 설치된 승강기 2호기가 운행됨에 따라 기존의 승강기 부족에 따른 이동정체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

지영진 기사, 경기도지사 표창 받아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지영진 실험기사가 지난 2월 28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한임상병리학회 경기도임상병리사회에서 활동 중인 지영진 기사가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의학문헌정보센터 도서기증에 감사드립니다

- 前 미생물학교실 윤정구 교수가 「공황장애」의 15권의 개인 소장 의학 도서와 「Encyclopedie des Sciences」의 40권의 일반 교양도서를 기증했다.
- 피부과학교실은 「안면색소질환 치료」 4권을 기증했다.
- 13층 동병동 송충숙 수간호사가 「전기치료학」의 20권의 개인 소장 의학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보건대학원, 제1회 입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보건대학원은 지난 3월2일 송재관 제1강의실에서 2004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효철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조병륜 보건대학원장, 김영수 의과대학장, 홍창호 병원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와 신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보건대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효철 의료원장의 축사, 교직원 소개 및 교육과정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병륜 보건대학원장은 「학생들이 보편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길잡이로서의 1회 입학생의 중요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학년도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에는 보건정책과 관리 전공 15명, 역학과 건강증진 전공 7명, 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명 등 총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소화기내과학교실 조성원 교수, 후즈 후 인명사전에 등재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조성원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마르키스(Marquis)사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Who's who)에 「의학 및 보건분야」 업적자로 등재될 예정이다. 조성원 교수는 「B형 간염」에 관한 의학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오는 2004년 8월에 발간되는 2004년, 2005년 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될 예정임을 최근 마르키스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후즈 후」는 세계적으로 이르면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과학·예술 분야 우수 업적자 2만8천명을 선정하여 직업, 경력, 취미, 가족관계 등을 게재하고 있다.



메딕 챔버, 의료원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개최

의과대학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메딕 챔버(Medic Chamber)가 지난 3월3일 오후 7시 청소년 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아주대의료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회귀질환자들을 초청, 지역사회내 장애인들과 소외층을 위한 연주회로 기획됐다. 메딕 챔버는 지난 1988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중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로, 올해로 15번째 연주회를 맞았다. 이날, 메딕 챔버는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들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스페티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베토벤 「교향곡 7번」 등을 연주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연구소 ▶▶▶

뇌질환연구소, 세계 뇌주간 맞아 「뇌질환의 이해」 강연회 개최



뇌질환연구소는 세계 뇌주간(Brain Awareness Week, 3.15~3.21)을 맞아 지난 3월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뇌질환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뇌질환연구소 김승업 소장이 「치매·알츠하이머병의 이해와 대책」에 대해, 신경과 주인수 교수가 「뇌졸중의 이해」에 대해,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파킨슨병의 개념과 치료」에 대해 강연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뇌질환연구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뇌학회 주관한 이번 강연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뇌모형 문진을 무료로 배포했다.

강연에 앞서 김승업 소장은 『강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뇌질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뇌질환에 대한 최신정보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많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병원 ▶▶▶

내과부, 제6회 개원의을 위한 연수강좌 개최



내과부는 3월2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제6회 내과부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연수강좌는 방사선과, 핵의학과, 소아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여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비내과적인 문제들을 현실감 있게 다뤄 환자진료에 큰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됐다.

이날 연수강좌에서는 ▲ 소아의 성장과 발육 ; 저신장증의 치료(소아과 황진순 교수) ▲ 색소성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피부과 강희영 교수) ▲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치료(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 MDCT의 임상적 유용성(진단방사선과 김재근 교수) ▲ PET-CT의 임상적 유용성(핵의학과 윤준기 교수) ▲ 전염성 질환, 무엇이 문제인가(호흡기내과 최영화 교수) ▲ 어지럼증의 실제적 진단 및 치료(신경과 허균 교수) ▲ 개원가에서 흔히 보는 정신과적 문제(정신과 이영문 교수) ▲ 흔한 통증질환의 실제적 치료(마취통증의학과 김찬 교수) ▲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의 새로운 치료(순환기내과 윤명호 교수) ▲ 개원가에서 알레르기질환의 치료(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남동호 교수) ▲ 빈혈에서 골수이식까지(종양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제9회 희귀염색체 환자와 가족 모임 개최



유전학클리닉은 3월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지하 1층 수석홀에서 「희귀염색체 - 프라더 윌리증후군 환자와 가족모임」

을, 오후 1시 지하 1층 아주홀에서 「희귀염색체 - 묘성증후군과 윌리엄 증후군 환자와 가족 모임」을 개최했다.

프라더 윌리증후군 환자와 가족모임에서는 내분비대사내과 정운석 교수가 참석하여 프라더 윌리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성장호르몬의 치료 효과를 중심으로 한 사례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묘성증후군, 윌리엄증후군 환자와 가족모임에서는 소아과 정조원 교수가 참석하여 이들 증후군과 심장이상 증상과의 관계 및 심장검사, 진단, 예후 등에 대해 강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의료원 10주년 기념, 자연보호활동 실시

병원은 의료원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광고산 및 팔달산 자연보호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4월24일, 문암골 야구터 주변에서 식목행사 및 야생화심기, 새둥지 달아주기 등의 자연보호활동을 시작으로, 5월22일에는 팔달산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건강체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6월26일에는 광고산에서 자연보호 및 각종 표지판 정리 등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사회사업기금

후원구좌 가입 안내



아주대병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및 재활용품 지원, 지역사회내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사회사업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지로계좌번호 7657236
- ▶ 은행무통장 입금
제일은행 692-20-116147
- ▶ 예금주 아주대학교의료원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3. 1	경인일보 외	재활의학과 이일영 교수	초대 척수손상학회장 선출
3. 2	경향신문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외과 조용관 교수	전국 주요병원 위집환 명의원들
3. 2	수원신문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	아주대병원, 캡슐내시경 도입
3. 3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동맥경화증
3. 4	중부일보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	아주대병원, 캡슐내시경 본격 가동
3.10	한겨레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	과식한뒤 뱃배 '룩룩'...혹시 담석증?
3.10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뼈
3.17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아동학대
3.23	인천일보	소아과 배기수 교수	'학대아동 보호팀' 구성
3.24	조선일보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골치덩이 '켈로이드' 예방
3.24	한겨레	정신과 정영기 교수	나쁜한 볼 쏟아지는 줄을 아껴하라
3.24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개회총
3.24	한겨레 외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아주난청재활교실 개최
3.25	중부일보	종양혈액내과 박준성 교수	건강길라잡이 - 코피
3.25	경인일보 외	소아과 배기수 교수	학대아동 보호팀 발족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3.19	KBS 뉴스8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	세계 뇌주간 강연
3.19	SBN 뉴스	뇌질환연구소 김승업 교수	뇌질환 바로 알자
3.23	KBS뉴스8	정신과 이영문 교수	인터넷서 만나 5명 동반자살
3.25	KBS2 라디오	이비인후과 문성균 교수	라디오 건강365-뉴스특점, 난청재활교실
3.25	SBN 뉴스	소아과 배기수 교수	학대아동 보호팀 출범

봄의 불청객, 황사

올해 황사는 더 심할 것이라고 한다. 처음 심한 황사를 접했을 때 우리는 마치 기상 재앙이라도 맞은 듯 시끄러웠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봄철 꽃가루처럼 봄이면 찾아오는 당연한 불청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황사는 단순히 흙먼지가 아니라 카드뮴, 납, 실리콘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고,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황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 예방책을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았다.

황사 발생시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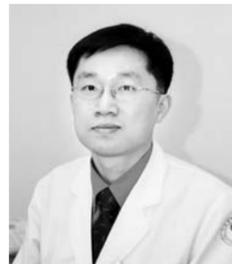


국내 학자들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황사 발생일의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조건의 황사가 없는 날에 비하여 전체 사망률이 1.7%,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은 2.2%, 심혈관 및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4.1%가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미세먼지의 증가가 폐암 사망자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며, 동물실험에서 폐포에 직접적인 독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황사가 심할 경우 미세한 먼지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이 아플 수 있으며,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 등의 빈도가 늘 수 있다. 황사는 또 흡연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만성 기관지염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호흡기 기능이 약하고 폐활량이 적은 노인과 영아에게 호흡기 감염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나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숨이 차고 숨쉴 때마다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천식 환자의 경우 기관지가 과민반응에 의해 좁아지며 발작적으로 기침이 나고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지며, 기관제 확장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황사가 심한 경우 호흡기질환 외에도 눈과 코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결막염이나 비염을 불러올 수 있으며 피부질환도 늘어날 수 있다.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가 심한 날은 노인, 유아, 심장질환자, 천식환자 및 호흡기질환자들은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황사에 대한 노출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과 얼굴 등을 잘 씻고, 양치질로 입안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집안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박 주 현 교수 / 호흡기내과학교실

황사란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 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 황사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언급된 것을 보면, 황사는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근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드넓은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건조지역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 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 3년전부터는 이 지역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도 황사가 발원하여 우리 나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급속한 공업화를 거치며 납, 질산 및 아황산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중국을 경유하면서 오염물질이 미세분진에 더욱 많이 섞여 황사에 대하여 더욱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황사 유해성의 주범은 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한 먼지로 숨을 쉴 때 호흡기 깊숙이 침입하여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 유아, 노인 및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있어 심각한 유해성을 지닐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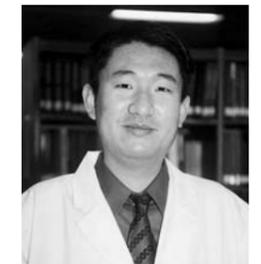
천식환자 황사 발생시 상비약 준비해야



대기오염이 호흡기·알레르기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1952년 영국의 런던에서 대기오염(London fog)으로 인하여 3주 동안 4천명이 사망했던 보고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황사가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중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는 작은 크기(직경이 10micrometer 미만)의 분진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중에 작은 크기의 분진이 증가하는 경우 호흡기·알레르기질환을 악화시켜서 천식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천식 발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인은 작은 분진이 호흡기도로 유입되어 기도에 염증반응을 더욱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일부 천식 환자들의 경우 대기중에 황사로 인한 분진의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천식 증상이 악화화 호전을 보임이 보고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호흡기로 흡입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황사분진은 일반적인 마스크의 착용으로는 효과적인 차단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따라서 호흡기·알레르기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황사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황사에 노출되어 증상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여 비상약을 처방 받아서 증상이 악화되려고 하는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남 동 호 교수 /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봄철 황사, 안과질환 더욱 부추겨



봄철이 되면 눈의 자극감과 가려움증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다. 이는 봄에는 건조한 날씨와 꽃가루 때문에 「건성안」과 「알레르기 결막염」이 증가하는 시기인데다, 우리 나라의 경우 매년 예외 없이 찾아오는 황사가 눈의 염증성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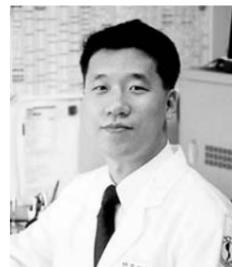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안구표면을 보호하는 눈물층이 쉽게 마르게 되며, 이로 인해 건성안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다. 건조증이 지속되면 눈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발생하여 건성안이 더욱 악화되거나, 바이러스 결막염 등의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봄철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 등의 이물질이 대기중에 많아지므로 알레르기 결막염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황사는 그 자체로 안구 표면을 자극하여 자극성 결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대기중에서 질소나 황 산화물을 형성하여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을 더 심하게 하기도 한다. 황사에 의해 유발된 결막의 염증은 건성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봄철에 나타나는 눈병의 유형은 상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따가움, 가려움증, 끈적끈적한 분비물의 증가, 안검이 붓는 현상, 눈의 충혈,

건조한 느낌 등이 동반하게 된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인공눈물이나 알레르기 치료제 등의 점안제로 증상을 완화시키며,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 얼음찜질을 권하기도 한다. 예방은 가급적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고글은 너무 과하겠지요)를 착용하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세수를 해야 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인공눈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좋으며, 수돗물에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박이거나 농도를 모르는 소금물로 씻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 증상이 심하거나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인공눈물 이외의 안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재홍 교수 / 안과학교실

피부미인, 황사 대비 피부관리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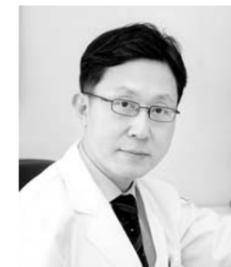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봄은 겨울내내 가려졌던 피부가 다시 노출되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자외선은 강해지며, 꽃가루가 많이 날려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 중금속이 함유된 황사가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가 가렵거나 따가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피부가 붓거나 열이 나며 붉은 반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조하고 세찬 황사 바람은 피부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하얀 각질이 일어나게 한다. 황사 먼지가 모공에 달라붙는 경우는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 뾰루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황사는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황사 발생시 피부관리에 적극 신경써야 한다.

■ 황사 발생시 피부관리법

- 1. 외출 전 수분 크림을 바른다.**
외출 전 수분 크림을 발라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황사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2. 외출할 때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옷을 착용한다.**
중금속을 함유한 모래먼지 속에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황사먼지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안경, 마스크, 스카프, 긴 소매 옷 등으로 피부를 가려야 한다.
- 3. 외출 후 씻는다.**
바깥활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얼굴, 손, 발은 물론 노출된 부위는 모두 깨끗이 씻도록 한다. 황사의 미세먼지는 잘 씻겨나가지 않으므로 클리닝 제품으로 먼저 모래먼지를 잘 닦아내고 순한 비누로 이중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 세안이나 샤워에 사용하는 물은 미지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드럽게 여러 번 행구어 낸다.
- 4.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며,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신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로부터 수분을 빼앗아 간다. 따라서 가슴이나 젖은 수건으로 집안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한다.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어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 5. 집안을 구석구석 닦아 청소한다.**
미세먼지는 창문을 닫아 두어도 들어올 수 있다. 가구까지 걸레로 꼼꼼히 닦아서 실내의 미세먼지가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김유찬 교수 / 피부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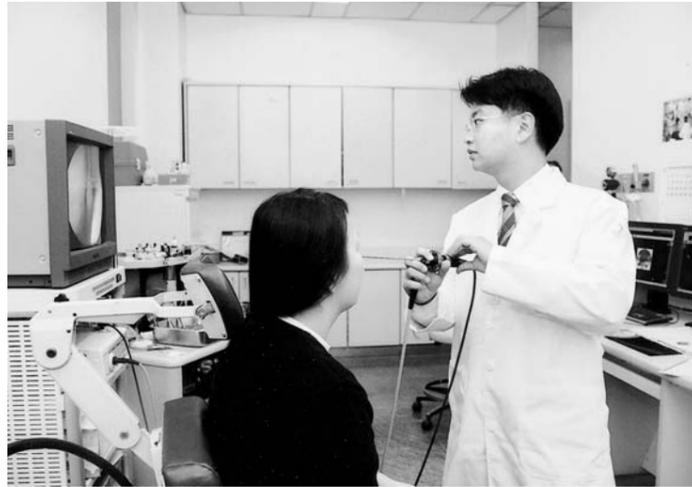


황사 비상, 코(鼻)질환 비상!

요즘 이비인후과 외래에는 황사 때문에 목이나 코에 증상을 느껴 내원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황사란 중국 및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미세한 토양 입자가 대기 중에서 이동되어 낙하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 공정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어 토지의 사막화가 증가되어 황사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다. 황사는 모래 성분인 규소, 철, 칼륨 등의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납, 카드뮴, 알루미늄, 구리 등이 섞여 있어 몸에 해로운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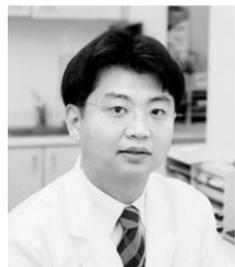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황사에 노출되면 목이 따갑거나 아프고, 코가 막히고, 콧물이나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 사람들도 증상을 경험하지만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은 콧가루나 집먼지 진드기 음식물 등의 원인 항원이 되는 특정한 물질에 민감하지만 보통 대기 오염, 온도나 습도 변화, 먼지 등 비특이적 자극에도 민감성이 증가되어 있어 황사에 노출되면 더욱 심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처럼 코막힘에 의해 습관적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환자들은 급성 상기도염에 걸리기 쉽고, 미약한 외부자극에도 만성 기침과 같은 기도과민증이 나타나며, 만성 부비동염, 중이염 및 만성 편도염 등의 합병증이 쉽게 야기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사가 발생할 때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시 마스크 등을 사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닦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공기 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황사와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는데 코점막이 너무 부어 있을 경우에는 코점막 수축제나 콧물을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며, 여러 성분의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등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차적 감염이나 합병증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나 일반인들도 평상시 코의 상태를 개선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는 식염수 세척과 뜨거운 수증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이 있다. 식염수 세척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리 식염수를 하루에 3번 정도 코 안에 주입하여 코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주는 방법이며, 너무 뜨겁지 않은 주전자 등에서 수증기를 들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황사를 반기워 하는 사람은 의사와 세차장 주인 뿐이라는 말도 있다. 해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는 점점 심해질 것이다. 가능한 황사를 피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현 준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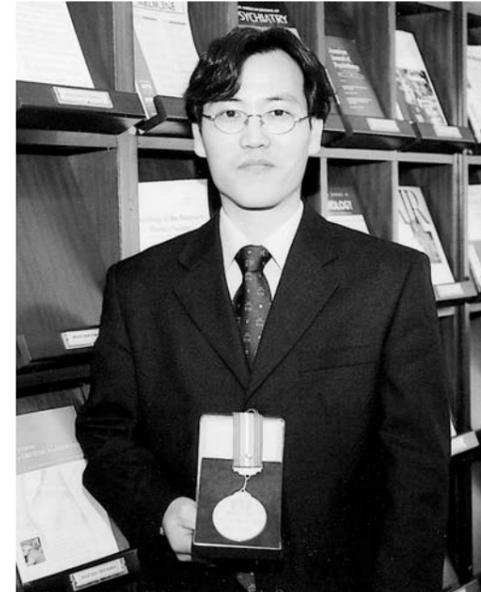
안성민 졸업생,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수상

2003학년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인 안성민 학생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에 선정, 지난 2월26일 목요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수석졸업 및 2004 호주정부초청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학술 및 연구분야)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안성민 학생을 만났다.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소감은?

재학 중 공부와 연구를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생으로서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연구도 계속 진행해야 했기에 두 가지 일을 모두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의학부 수석졸업과 대통령 표창을 받음으로써 공부와 연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그동안 연구를 위해 함께 노고해 온 신동선 선생님과 최용우 학생에게도 감사하다.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혈액을 이용해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를 찾는 연구와 대장암 항암제로 공격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미국 NIH의 국립암센터에서 임상 단백질체학(clinical proteomics)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년간 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초의학을 하면 임상의학보다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90년대 초반, 어느 노벨상 수상자는 『If you do good science, science will take care of you.』라고 말했다. 평소 이 말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기초의학이 발전해야 임상의학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향후 연구계획 및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기초의학 연구를 응용과학 즉,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학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암 연구에 관심이 많다. 암은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며, 학문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질병임에 틀림없다. 의학연구는 내 개인적으로는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얻는 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손미선 / 홍보팀 >

3층 집중치료실의 의료진과 첨단 시설, 아주대병원의 자랑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 3층에 위치한 집중치료실, 수술실 구역은 아주대학교병원의 자랑이며,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층 집중치료실은 크게 A존과 B존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에 탐방하게 될 A존은 외과분야 중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외과계 집중치료실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문 의료진 1명, 간호사 23명, 보조원 인력 11명이 외과(GS)영역의 수술 및 외상환자, 소아 중환자를 위한 13개의 침상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각 환자들은 집중치료실 운

영과 별도로 각 해당과 주치의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중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춘 최고의 의료장비와 시설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아주대학교병원의 자랑거리이다.

3층 집중치료실은 언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13명의 중환자들과 사투의 현장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력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으며, 의식이 없거나 희미해 환자의 상태변화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환자감시장치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골절되고, 출혈로 계속 퍼붓듯이 수혈하고, 수술후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위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손놀림을 움직이는 의료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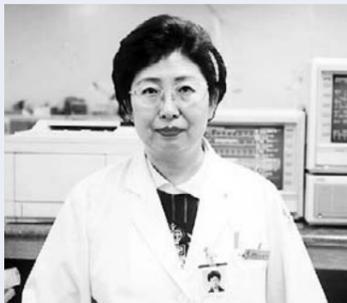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환자 목욕 시키기, 배변관리,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등마사지와 자세변경,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보호자 상담 등 가족들도 힘들어 하는 곳은 일도 마다 하지 않는다.

대학병원이자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치료의 역할을 이제껏 훌륭하

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이러한 의료진의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환자관리는 물론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3층 중환자실 간호사들,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지는 환자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지어진다. 쾌유되는 환자를 지켜보며 「고생」이 「보람」으로 바뀐다는 3층 집중치료실 식구들은 백의 천사가 맞는 듯 하다.

마취통증의학과 이영주 교수가 말하는 3층 집중치료실 A존



집중치료실은 첨단 의료장비와 고도로 훈련된 의료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급성으로 악화된 환자를 최선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소생시키고자 하는 곳이다. 외과계 집중치료실 A존은 규모나 시설 장비, 인력면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아주대학교병원이 환자 일인당 면적이 국내에서 가장 넓듯이, 외과계 집중치료실 A존은 본원 다섯 곳의 집중치료실 중에서도 가장 넓고, 쾌적한 공간을 환자나 의료인에게 제공하므로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원 감염률이 가장 낮다. 장비면에서는 최근 어느 침상에서도 폐동맥압, 심박출량이 측정가능 한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며, 침상에서 호흡역학이 측정가능한 호흡기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중환자 전담의가 상주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수가 다섯 곳으로 본원이 그 중 하나이며, 또한 우리 나라 중환자실 간호사의 평균 경력 3년인 반면, 본원의 경우 개원 초(10년 전)부터 함께 일해 온 간호사가 절반을 넘는다.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여야 할지 알고 환자를 위하여 일심동체가 되니 『아무리 중환인들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환자, 보호자가 칭찬한 함정화, 박영임 간호사



생과 사를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교통사고 앞에서 포고령을 내리듯 강제로라도 모든 신들을 불러 죄목없는 반성이라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중략〉

미동조차 힘겨운 환자가 한달만 누워있어도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감염을 유발시키고, 모든 장기라든가 관악이 악화돼 목숨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욕창까지 생겨 이중 삼중고의 아픔을 겪는다고 했는데 너무도 다행히 함정화! 박영임! 간호사님은 단순히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내 부모,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희생과 봉사로 지지치 않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줄 뿐만 아니라 힘겨운 호흡을 함께하고 있기에 염려했던 일들을 무사히 비껴가고 아버지의 얼굴빛이, 손놀림 몸짓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중략〉

오늘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말뚝이 되주고 계속 함정화! 박영임! 간호사님께 가족 모두의 가슴속 깊은 감사를 서툰 글 한 줄에 답합니다.

(이 글은 2004년 1월18일 김영성 님의 보호자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나의 건강상식은?

당뇨병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당뇨병 환자는 혈당조절만 잘 하면 된다?

실제 당뇨병 환자, 특히 중년이후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많이 동반하게 된다. 이런 질환들은 서로 비슷한 원인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흔히 고혈압이 있던 분이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고지혈증도 많이 있게 마련이다.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당조절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심혈관질환, 즉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답 : X〉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합병증이 심해지면 어떤 치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다.

〈정답 : O〉

고혈압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실제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혈압약은 한번 먹게 되면 평생 먹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혈압약을 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고혈압약이다. 고혈압은 어느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십년 동안 우리 몸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고혈압이 생긴다. 나아가 들면서 고혈압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30, 이완기혈압 85만 넘어도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의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것이며, 심각한 수준으로 손상되었을 때 증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필수적이다.

〈정답 : X〉

당뇨병은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가 필수이다?

당뇨 합병증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찾아온다. 우리 몸은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히 나빠졌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정기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검진을 해서 조기에 이상을 찾아야 한다. 당뇨병에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 눈, 신장, 신경, 혈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기 위험신호를 찾아내고

김 대 중 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협력병원 탐방

바른 진료, 바른 서비스 ... 이천의 새로운 역사! 바른병원!

정형외과 전문, 바른병원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에 위치한 바른병원은 경희대 출신의 정형외과 전문의 채영호 병원장을 중심으로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만들겠다는 설립이념 아래 2003년 2월 개원했다.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바른병원은 대학병원 수준의 최고급 첨단장비와 고품격 진료공간을 갖추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깨끗한 현대식 건물에 정형외과 1·2과, 일반외과, 내과, 마취과를 운영하고 있다. 바른병원의 60여명 직원들은 높은 진료수준은 물론 환자중심의 서비스까지 겸비함으로써 이천지역의 의료개선에 앞장서는 병원이 되겠다는 채영호 병원장의 신념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각종 재해의 지킴이

경기 동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이천은 남북을 잇는 중부고속도로와, 동서의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서울에서 충주를 잇는 3번 국도와 수원에서 여주를 잇는 43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으로, 산업적으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기반과 의료인의 지역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범람으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병원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바른병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해는 다름 아닌 사지 절단에 의한 후유증이다. 이곳 이천에도 하이닉스를 비롯한 여러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나 농기계 작동 미숙사고로 인한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술이 가능하고, 또한 수술을 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후송하다가 수술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장애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다. 바른병원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설립되었다. 미세 접합 전문의인 채영호 병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손발을 맞춰온 수술팀, 응급실팀 등 바른병원의 직원들은 어떤 응급상황에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환자 중심의 인테리어

바른병원은 신생 병원다운 깔끔한 현대식의 외관은 물론이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타일, 복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된 핸드레일, 병실의 반 자동문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한 편의시설이 돋보이는 병원이다. 이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서 환자의 완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환자 중심의 마인드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 병원의 자

랑거리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항상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것이 이 지역 타 병원과 차별화된 응급진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년 보다 더 빛날 미래를 향하여

개인과 함께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여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른병원은 이런 네트워크를 토대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에 한정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바른 병원을 모티브로 3차 병원에서도 신속하고도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바른병원은 올 한 해 목표가 많다. 이천의 명실상부한 최고 병원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고,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없는 용인, 여주, 장호원 등의 주변지역까지 의료수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두번째 목표이다. 채영호 병원장을 비롯한 이 신생병원의 전 직원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지난 1년 보다 더 빛날 미래를 향하여 서로의 땀방울을 닦아주며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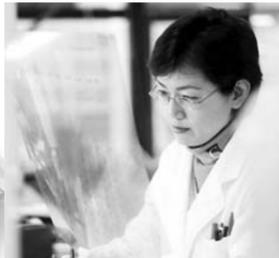
김 영 배 팀장 / Q팀

최고의 의학명문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여러분이 키웁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을 위한 자리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있는 의과대학, 질병 연구와 치료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하는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신설되는 교육·연구동에는 첨단 연구시설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정보 교류와 협력, 시설의 공유를 통해 역량을 극대화하여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의 중심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총계

구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간	4명	24,030,000원	31,961,000원
누계	342	1,822,975,531원	1,779,894,331원

성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의료원 납입분>

강해석	10,000,000	원천약국
박재범	2,000,000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정호	10,000,000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전진옥	30,000	외부 후원
정도영	1,000,000	前 비뇨기과 교수
○○○	1,000,000	의과대학 학부모
교직원 분납분	6,459,000	(교직원 급여 공제)

■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의학발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주식, 기타 자산이나 의료기기,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도 좋은 후원이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 지로납입 전화신청 031-219-4000
- 자동이체 거래은행 신청 후 후원회에 전화통보
- 무통장 입금 거래은행 예금주 : 아주대학교의료원
- 제일은행 692-20-16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한미은행 542-00896-248
- 농협 116-01-060243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우리은행 177-089499-13-102

(가나다순)
2004.2.18~3.24



게시판

아주난청센터, 아주 난청재활교실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난청센터가 3월26일 금요일 오후 5시30분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제4회 아주 난청재활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아주 난청재활교실의 주제는 「인공와우 수술 및 정부지원안」으로 ▲ 인공와우란 무엇인가? ▲ 맵핑 ▲ 언어 및 청각재활 ▲ 인공와우 수술결정부터 재활까지 ▲ 아주 난청센터 인공와우 관련 프로그램 ▲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정부지원안 ▲ 절의응답 ▲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아주난청센터는 매년 난청에 관심있는 청각장애아동 및 가족, 특수학교 및 재활기관 관계자분들,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치료사 및 청각사 등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난청 재활교실 및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주난청센터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공와우 이식술」을 성공한데 이어 현재까지 50여건의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인공와우 이식술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환아들을 주도적으로 수술하여 주고 있다.

(아주난청센터 언어치료실 031-219-4319, 4320)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내과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박해심	5902	수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남동환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무릎,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장환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5979 내과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5896 내과	김진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한증, 수족냉증, 대상포진용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허약증	★
4744 내과	김반진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심성통 기타	
	유방클리닉	4743	월, 화, 목*	목	유방 질환 및 갑상선 질환	
5814 내과	윤태일	4743	수, 금		유방 질환 및 내분비 질환	*은 밤모름 시술만 시행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	수, 금	심리간사 프로그램	

진료과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
순환기내과	심부전클리닉 5717	최병일 5974	월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
알레르기내과	벌독(곤충독)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환 5905	화, 토	목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해외연수중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김미린 5597	화, 목, 토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문상호	화(1주, 3주)		
	움직이는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1	문상호	화(2주, 4주)		
비뇨기과	야뇨증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신상호 5957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황병남 5869	화, 목			
	턱관절 장애클리닉 5869	고석민 5869	화	수		
		황병남 5957	금	월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 병원 → 아주대 입구(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4월1일 현재>

외래진료 접수시간

-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용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황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범	5963	수, 토	월	위장관질환		
	정재연	5962	금	화, 수, 목	간질환		
	김종수			월	소화기질환		
	최준희	수		월	소화기질환		
	임태영	목		월	소화기질환		
최혜진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최병일	5974	월, 화, 수		심장혈관질환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신준환	5975	월, 목	화	심부전, 심장질환, 고혈압		
	황교성	5975	목	월, 목	부정맥, 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극술,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최소연	5975	금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중재시술		
	최태영	5975	화		고혈압, 심장질환		
	최병주	5973	토		고혈압, 심장질환		
	최정현	5973		월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결핵, 감염성폐질환, 폐암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폐·원모근 질환(폐기, 크로니카, 폐결핵) 등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오은정	5968	월, 수, 목	화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박주현	금, 토	월, 화		호흡기질환		
	일반진료	5968	수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목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사후증, 갑상선질환	
5954 내과	이형숙	수, 금	화		내분비대사질환		
	일반진료	5961	토	수	내분비대사질환		
신경내과	김홍수	4741	월,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무척추,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일반진료	5971	토	화			
장외과	김효철	5992	수, 금		원시증, 글루코마, 백내장, 안검열, 조절이상		
	최인호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혈압		
	최진희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혈압		
	박준성	5992	월, 화, 목	화, 목	혈액질환, 종양		
	일반진료	토	월-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5905	월,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무릎통풍		
	남동환	5905	화, 토	화, 목	식, 알레르기·류마티스질환, 무릎통풍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질환, 무릎통풍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내과일반	5970	월-토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월	신경계질환, 간질	★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학	★	
	이수영	5623	수, 목	월, 화	알레르기, 호흡기학	★	
	박문성	5617	월, 수	화, 금	미숙아, 신생아학	★	
	정조원	5621	화, 금	월	심장질환	★	
	황진순	월	화, 목, 금		소아내분비 질환	★	
	박준은	화, 토	화,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	
	석호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미숙아질환	★	
김연희	목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		
일반진료	수, 토	수			★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 1명의 의사가 주마다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신경과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치매		
	이필후	5657	월, 토	화, 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간질		
	일반진료	5657	수, 목, 금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이영문	5810	목, 토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및 정신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언어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성낙	5912	화(예약), 목(예약)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화(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월, 화, 목	화, 목(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수, 금	월, 화(예약), 목	백내, 무릎, 정맥류, 피부암 (수·레이저치료)		
5917 내과	이지연	수, 금	월, 화(예약),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수, 목, 금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5913	월-토	월-금				
외과	김명욱	5761	월, 수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폐변기능장애)		
	홍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서경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 소화기질환		
	김우환	5756	화, 목, 토		간·담도·췌장 질환		
	5758 내과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정용식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갑상선 질환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소화기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수		유방질환, 내분비 질환		
	김홍	토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정인호	토	화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영역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홍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목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월, 목	폐 · 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강준규	5750		금	심장혈관외과	
	이상수			수	폐 · 식도외과	
5717	일반진료	5750	토	심장외과, 일반홍부질환		
정형외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척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토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토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토	금	*는 팔절염센터 진료	
	신경외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흥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심숙영		월, 토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성형외과	박정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박동하		월, 수,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황인석	토	화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토	월~금			
산부인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제 환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수술	
	양정인	5593	월, 목	월, 수, 목,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제 환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이정필	5595	월, 토	수, 목	부인암, 산과, 부인과	
	김미란	5643	화, 목, 토	화, 목	불임, 습관성 유산, 부인과(복강경)	
	일반진료	월~토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 (예약), 목 (예약)	망막, 조자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렌즈클리닉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5월부터 진료 예정			각막	
문찬식		수, 토			망막, 조자체, 백내장	
일반진료		5671	월~금			
이비 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 (정형클리닉)	월, 목	중이염, 난청(유선청·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김철호	5746	월, 목	수 (음성클리닉)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 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토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이준호	토	월, 목		난청, 부비동염	★
	일반진료	월~토	월~금			

진료영역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일반진료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재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수손상	
	나은우	5796	화, 목	목,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6440	토	월, 화, 수	소아재활	
	일반진료		화	목		
다 사 선 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제한	5863	해외연수중		혈액순환장애, 폐질환, 허파혈관질환	★
	일반진료	5145	수, 금, 토	화, 목		
방사선 종양학과	전미선	5884	월~토	월~금	종 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토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토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핵의학과	윤석남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토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신경외과	이경종	5645		화		
	박재범	5644		목		
일반진료	5644	토	월~금			
가 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셋별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토	월~금		
치 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이식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일반진료		토	월~금	재진환자만 가능	
					*는 별도 예약 ※ 토요일은 특진과수가 교대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영역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실 전화번호	오 전	오 후	야 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조준필	6005	월, 수	금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운석	6005	화, 목	수, 금	목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종	6005	금	월, 목	월,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